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고종 22년 경주향교가 새롭게 태어났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고종 22년(을유乙酉 1885)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부임한 민영규(閔泳奎) 부백(府伯)은 부임 사흘 만에 경주향교 성묘(聖廟)를 참배했다. 문학(文學)으로 중앙에서부터 대중적 존송을 받았던 민영규(閔泳奎) 부윤(府尹)은 묘당(廟堂)이 낡아 지탱하기 어렵고 비바람에 찌긴 기둥과 서까래가 부러져 춘추 향례 의식을 봉행할 때 근근히 문구(文具)만 갖춰 놓은 현실과 허물어진 담장을 보고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민(閔) 부윤은 경주 향을 지키는 유림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주향교를 중수(重修)하려하오. 공자의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법(法)으로써 절제하여 쓰면 재물이 손상되지 않고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였고, “재물을 손상 시키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면 이것은 부자(夫子, 孔子)의 가르침을 거슬러 부자(夫子)의 묘우(廟宇)를 높이며 하는 일이나 과연 옳다고 보시오”라고 물었다.

경주부(慶州府) 동헌(東軒)에서 부백(府伯)과 미주했던 유림들은 한결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夫子)가 춘추(春秋)를 편찬할 때 노(魯) 회공이 어려운 시기에도 남문(南門)을 화려하게 건립했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 같은 사실이 부당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자금은 흥년이 들었지만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이 노(魯) 회공의 시대상황만큼 심하지 않을뿐더러 학교를 세우는 일은 춘추에도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나라의 정사(正事)란 그만 둘 수 없는 일이며 경주향교는 옛날처럼 건립 가능한 일인데 중수뿐이겠습니까.” 참석 유림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민영규(閔泳奎) 부윤은 그 자리에서 동석한 권필환(權必煥, 좌윤공파 32세) 공(公)을 도감(都監)으로 임명했다. 권필환(權必煥) 공은 부남(府南) 옥수동에서 가선대부(嘉善大夫, 從二品)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권학일(權學一) 공과 정부인(貞夫人, 正從二品) 문무관부인(文武官夫人) 학성이씨(鶴城李氏) 사이에서 셋째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성리학에 정진, 경주향에서 학문이 높은 유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자(字)는 자숙(子淑) 호가 청음(淸陰), 월산거사(月山居士)로 불렸다. 임란의병장 권사민(權士敏) 매헌공(梅軒公)이 8대조, 명종(明宗) 임금 재위 시 대과에 급제, 예조 병조 정랑과 함천 영천 군수를 지

내신 귀봉공(龜峯公, 휘諱 덕린德隣)이 9대조, 고려말 절신 송고공(松阜公, 성균관대사성, 함경도관찰사)의 직계 후손이다.

도감을 맡은 공은 곧 중수에 들어갈 물자를 마련하는 한편으로는 전국의 장인들을 모아 경주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동무 서무의 비가 새 썩어가는 지붕 서까래와 마루바닥을 고치고 향교 팔작지붕을 새롭게 단장했다.

계림 숲과 교촌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800m가 넘는 돌담장도 맡김하게 보수했다.

지금의 경주향교는 1885년 도감 공의 보수공사로 1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보존, 대성전은 2011년 12월 7일 보물 제 1727호, 명륜당은 2020년 12월 28일 보물 2097호, 동무 서무 삼문은 같은 해 보물 2098호로 지정, 유교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게 됐다.

경주향교 역사는 조선이 개국, 유학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밝아져 1492년에 부임한 최응(崔應賢) 부윤이 고려 이후 낡았던 건물들 중수, 향학을 일으켰다. 이 건물은 임진란의 병화(兵火)로 불타고 1600년(庚子) 들어 이시발(李時發) 부윤이 성묘(聖廟)를, 1614년(甲寅) 이안눌(李安訥) 부윤이 명륜당을 세웠다.

백성들의 학문 숭상에 뜻을 뒀던 부백(府伯)들이 건물을 짓고 정학(正學)을 부식(扶植, 힘이나 영향을 미침)의 공이 컸으나 세월의 무상함을 이겨내지 못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시기, 신학문에 밀린 유학으로 인해 향교 보수공사기 선뜻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민영규(閔泳奎) 부윤과 권필환(權必煥) 도감이 만남으로써 경주향교의 위용이 지금처럼 보존됐다.

경주향교는 신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고 학생들의 강학 공간이나 묘우도 서울의 성균관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크다. 신라 신문왕 2년(682) 국학기관으로 설립, 오늘날까지 1340년을 넘게 유학의 산실이 됐다. 공자를 비롯 중국의 다섯 성인과 경주가 배출한 설총, 최치원, 이인적 삼현, 동국 18현 등 25 성현의 위패를 봉안한다.

도감을 맡았던 월산거사는 보수공사를 끝낸 1885년 경주향교 석전제(釋尊祭) 초헌관으로 잔을 올렸다. 1901년(辛丑) 71살에 서세(逝世), 묘소는 경주시 울동.

후손으로는 권상홍(權相洪, 1987년 졸/지방행정서기관), 권순일(權純溢, 71세 운곡서원, 경주중진회 부회장, 기업대표) 권순탁(權純卓, 59세 대구지방법원 서부 및 안동지원장) 변호사 등 마흔 명이 넘는 후손들로 번연했다.

<자료출처: 경주유교문화유적慶州儒教文化遺蹟, 안동권씨 좌윤공파 사정공세보安東權氏佐尹公派世正公世譜>



■ 안동 권문의 '좌윤공파' 사람들의 이야기

‘좌윤공파의 성지(聖地) 연원(燕院)에서의 정알례(正謁禮) 참례 후기’

권기색 좌윤공파 36세

2026.02.28.(토) 꼭두새벽, 청량리역발(發) 안동행(行) 첫 열차를 타기 위해 유독하게 부산을 떨었다. 큰맘 먹고 장만한 도포(道袍)도, 오며 가며 기차 안에서 입을 책 한 권[안동 권씨 좌윤공파 현조실록 '좌윤공 사람들'(저자 권오신(權五信), 708쪽, 인쇄: 도서출판모든)]도, 카메라도 챙기고는 무었에 이끌린 듯, 이제야 비로소 진정 나의 뿌리에 대한 숭모(崇慕)하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동 연원재사로 향한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벽두에 안동 권문의 좌윤공파(派) 시조를 비롯한 선조분들의 단소(壇所)와 묘소(墓所)를 살펴며, 새해 첫 인사로 그 예(禮)를 다하기 위해서다.

열차를 타고서야 비로소 안도하는 내심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내 몸 실은 기차가 2시간 만에 안동역에 내려주었을 때의 그 감각이 이를 말함이다. 쉽게 쓸 수 없는 안동 땅, 핏줄이 그리운 이

곳, 뿌리가 시작되고, 그 뿌리가 자리 잡아 가며, 큰 집, 작은 집 서로 도란거리며 그 풍상을 함께 했건만, 러말선조의 거센 풍상에 찢어지는 통한을 곱씹으며, 고향 땅을 떠나 그 선조분들의 심정을 나는 내 가슴으로 가다듬어 가며 찾아가기에 어찌 몽물하지 아니한가 싶다.

일찍 당도한 탓에 산책 삼아, 한적하고, 아주 잘 꾸며진 묘역을 걷는다. 큰 큰 나무 아래 널널 숲에는 잔잔한 어둠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시간, 산전초목들도 오늘 아침을 준비한다.

오늘은 정알례의 날이라! 삼삼한 공기조차도 코끝에서 그 맛을 더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높고 푸른 하늘은 겨울을 밀어내고 봄을 성큼 당긴다. 묘역의 동선은 분명했다.

연원재사 앞마당에서 출발하여 왼쪽 산 아래로 나 있는 길을 따라 파(派) 시조님의 단소 앞에 서면 이곳이 중심이다.

한 바퀴 돌아 나와, 아래로 선조 3위(位)를 지나, 합제단(合祭壇)을 돌아, 우측 능선 아래 오솔길에

걸어, 우측 산 능선에 올라서면, 하늘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며, 저 멀리 보이는 길모퉁이에는 그리운 님들이 금방 나타날 것만 같다. 다시 돌아 나와, 좌측 산길, 잔디 품 안에 있는 돌계단은 어쩌면 숭모의 웅단(絪縕)을 칸 세월을 건너게 해 준다.

이 길은 내 삶의 안정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해 가는 내 늙음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가 싶다.

정알례(正謁禮)는 정월(正月)에 선조를 흠모하며, 의관(衣冠) 정제(整齊)하고, 세배를 올리는 의례이기에 권오신 회장님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38명의 후손들이 참례(參禮)했다.

이번 행사 권혁무 현관님과 함께 합제단(合祭壇)에서 파(派) 시조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그분의 아드님인 추밀공(樞密公), 손자인 병부정랑공(兵部正郎公), 증손(曾孫)인 문과공(文科公)께 예를 함께 올리고, 자리를 옮겨 가며 고손(高孫)인 영가군(永嘉君), 현손(玄孫)인 고려 문하시중공(門下侍中公), 그리고 파(派) 시조 할아버지의 6세(世) 손(孫)인 문정

건강 칼럼 | 권영훈 한의원 원장

동트는 새벽 力, 20대 건강 80대까지

북향화(北向花) 목련

꽃봉오리 축농증·기관지에 좋아



봄소식을 알리는 꽃 중에서 가장 탐스럽고 밝은 꽃이 목련(木蓮)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택가나 마을 주변에 눈송이처럼 피어 있는 목련꽃을 바라보면 평화를 상징하듯 그 자태가 희고 맑으며 모양 또한 아름답고 향기롭다.

옛글에 ‘호시목련 춘신전(好是春信傳)’이라 하여 봄소식을 전해주는 목련이 아름답다는 글귀가 있으며, 이를 꽃의 이름을 영춘화(迎春花)라 하여 화창한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닌 꽃이다.

관상용 외에도 한방(韓方)에서는 축농증이나 목감기 코가 좋지 않을 때 약재로 활용하며 꽃이 만개되기 전에 꽃봉오리를 사용하여 종제화(筵笱花)라 부르고 있다. ‘백목련白木蓮, 자목련紫木蓮, 괴목련槐木蓮, 산목련山木蓮’ 등의 종류가 있는데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

위에 열거하였듯이 목련꽃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불리며 꽃이 북쪽만 바라보고 피어 있다 하여 일명 북향화(北向花)라고도 한다.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볼 때 집집

마다 북쪽으로 향한 모습으로 피어 있어 마치 찬 기운을 좋아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관상수로 식목할 때 꽃봉오리가 북쪽을 바라보도록 심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 남쪽이나 다른 방향으로 심어 놓으면 그 다음해 봄에는 반드시 북쪽에서 꽃망울이 생겨 피게 되므로 기이한 꽃나무라 하겠으며 한 방 의서(漢方醫書)에 북향화라 붙인 이름도 이러한 특색에서 비롯된 것 같다.

한방의 적응증을 자세히 소개하자면 두풍증 비색(頭風症 鼻塞 : 코막힘), 콧물[鼻涕], 인후염(咽喉炎) 등에 활용되며 만성화된 증세로 코가 마르거나 콧물이 나며 가렵고 할 때 한방의 ‘금수지제(金水之劑)’에 첨가 활용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의 관상수가 좋은 약재인 것이 한두 종류가 아니므로 응용증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한방의 진단이 요구되므로 적응 순차에 대한 자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운곡서원 은행나무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추진

경상북도가 관객 1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키는 영화 ‘왕과 사냥남자’ 속 비운의 왕 단종(端宗)과 그를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錦城大君)의 사사가 깃든 은행나무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 무형자산을 말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26년 3월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신청되는 은행나무는 영주 순흥 금성단(사적 491호, 내죽리 98)과 경주 운곡서원 은행나무다.

금성대군 신단 은행나무는 단종복위를 꾀하다 순절하신 금성대군(錦城大君)의 님이 깃든 나무로 알려져 있다.

성호 이익의 문집 ‘성호사설’에 따르면 단종 폐위 이후 200년간 고사(枯死)했다가 단종(端宗)이 복위되고 금성대군(錦城大君) 등 희생된 사람들이 신원(伸冤)되고 이들의 님을 기리는 제단(祭壇)이 만들어져 새일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운곡서원(雲谷書院) 은행나무(경주시 보호수 11-15-16) 역시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를 모의하다 순절하신 권산해(權山海, 1403-1456 端宗의 이모부, 宗簿寺僉正)의 후손 권종락(權宗洛)이 1789년 정조(正祖) 임금의 어가(御駕)를 가로막고 격쟁(擊鐙), 단종 사화 때 순절하신 자신의 12대조이신 권산해(權山海)의 신원(伸冤) 교지를 받고 영주 순흥에 들러 신원(伸冤) 사실을 고유하고 은행나무 큰 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 그해 6월 16일 운곡서원에 심은 것으로 죽림공(竹林公, 權山海) 등 그들의 충절을 서려 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 웅단이 깔려 서원 전체를 황금빛으로



(자료출처: Daum, 포항mbc)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해 역사적 의미는 물론 독보적인 경관 가치를 자랑한다.



공(文靖公, 7세(世) 손(孫)인 현령공(縣令公), 도합 8위(位)께 새해를 맞아 예를 올림에 이보다 더한 선조에 대한 흠모가 어디에 있으랴 싶다. 음복주 한 잔에 녹아 스며드는 그 진한 그리움이 밀려오고 또 밀려온다. 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정녕 생(生) 고아나 다름 바 없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만나는 죽진

들과 함께하며, 선조에 대한 흠모와 동시에 내 부모와도 만나는 듯하니, 어찌 이 길을 하기를 정말 잘한 거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싶다.

점으로 돌아오는 내내 느끼고 또 느낀다. 내 삶의 가치의 큰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조금씩 알아감을 내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다.